

2004년 5월 디지털전자 수출입동향

전자산업연구소 책임연구원 우 성 제

1. 수출입 동향 분석

가. 수출동향

디지털전자산업 수출(FOB)은 월별 사상최고 수준인 83억 1천만불로 전년동월(53억9천만불) 보다 56.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는 전년동월대비 82.0%가 증가한 22억2천만불의 수출을 기록. 세계 휴대폰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유럽형GSM방식 휴대폰의 수출 급증하는 가운데, 카메라폰, MP3 폰 등 고가형 컨버전스 제품의 선전이 두드러지면서, 미국(161.4%, 7억4천만불), 이탈리아(385.7%, 1억1백만불), 영국(272.5%, 8천8백만불) 등 3대 수출국으로의 휴대용전화기(94.9%, 16억3천만불)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기타무선전화기도 143.3% 증가한 2천2백만불을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정보기기는 35.5% 증가한 15억5천만불을 기록. 휴대용컴퓨터가 미국(△78.0%, 8백8십만불), 네덜란드(△65.9%, 5백9십만불), 일본(△70.6%, 5백3십만불) 등 3대수출국이 감소함에 따라 66.9% 감소한 4천만불을 나타냈으나, 개인용컴퓨터는 미국(211.6%, 1천2백만불)으로의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데 힘입어 60.0% 증가한 2천4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또한 액정모니터를 중심으로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58.2% 증가한 7억3천만불, 컴퓨터부품은 40.2% 증가한 5억1천만불을 기록했다.

〈디지털전자 무역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4년		2003년			
	1~4월	4월	1~5월	4월	1~5월	
수 출	전체산업	80,865 (38.6)	(37.6) 14,676	20,900 (3.5)	(42.4) 73,433	101,765 (16.5)
	디지털전자	31,018 (45.3)	(42.6) 5,309	8,315 (4.0)	(56.6) 27,066	39,333 (13.4)
수 입	전체산업	71,440 (23.2)	(21.1) 13,524	17,889 (6.5)	(32.3) 72,506	89,329 (22.8)
	디지털전자	16,901 (21.9)	(20.8) 3,252	4,122 (8.1)	(26.8) 17,249	21,024 (20.3)
무역수지	전체산업	9,425	3,011	12,436	1,152	927
	디지털전자	14,117	4,193	18,309	2,057	9,817

디지털가전기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경기회복세 확산과 국내기업의 현지공장 및 현지 로컬 기업에 공급하기위한 전용부분품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미국(20.0%, 2억4천만불), 중국(74.9%, 1억1천만불), 일본(47.8%, 1억6백만불) 등 10대수출국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2.3% 증가한 12억9천만불을 기록. 품목별로 디지털TV가 86.1% 증가한 1억3천만불로 호조를 보였으며, 냉장고는 32.3% 증가한 1억2천만불, 세탁기 50.0% 증가한 5천4백만불, 에어컨은 23.2% 증가한 1억5천만불, 반면에 아날로그TV는 10.5% 감소한 3천4백만불을 기록했다.

반도체 부문은 정보기기뿐만 아니라 휴대폰 등 통신기기, 디지털TV, MP3P, DVDP, 디지털카메라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제품에서의 고용량 고성능 플래시메모리 수요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69.7% 증가한 23억5천만불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對中 수출은 14억7천만불(83.4%)로,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162.6%)을 중심으로한 무선통신기기(65.9%), 액정모니터(94.5%)를 포함한 모니터(94.3%), 컴퓨터부품(95.9%) 등 품목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17억1천만불(72.3%), 유럽 14억3천만불(74.2%), 아시아 44억1천만불(50.0%)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나. 수입동향

디지털전자산업 수입(CIF)은 41억2천만불로 전년동월(32억5천만불)보다 26.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보조기억장치(△36.2%), 프린터(△14.3%), 진공청소기(△50.0%), 음극선관(△27.8%), 휴대용전화기(△60.0%), 디지털TV(△9.1%) 등 품목은 감소한 반면, 개인용컴퓨터(2.9%), 휴대용컴퓨터(36.4%), 모니터(64.6%), 컴퓨터부품(6.8%), 영상기기(34.6%), 음향기기(4.6%), 스피커(28.6%), 반도체(31.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85.7%), 인쇄회로(78.7%) 등 품목은 증가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양주(0.0%)에서는 수입이 정체된 반면, 북미(5.2%), 아시아(35.7%), 유럽(11.7%), 중동지역(41.7%)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를 보였다.

일본은 음향기기(2천4백만불, △16.6%), 전자관(1천1백만불, △7.6%)이 감소한 반면, 무선통신기기(7천3백만불, 19.0%), 전자응용기기(1억9백만불, 113.6%), 계측제어분석기(6천9백만불, 47.0%), 영상기기(5천2백만불, 6.3%), 반도체(4억4천만불, 23.4%), 정보기기(5천1백만불, 13.3%)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30.0% 증가한 10억6천만불을 기록했다

중국은 전자관(1천만불, △12.8%), 기타가정용 전자(3백7십만불, △3.1%)가 감소한 반면, 무선통신기기(3천9백만불, 85.9%), 정보기기(1억7천만불, 58.5%), 전자응용기기(5천2백만불, 15.0%), 영상기기(2천2백만불, 29.7%), 음향기기(5천2백만불, 36.4%), 반도체(1억3천만불, 90.9%), 건전지 및 축전지(3천5백만불, 8.5%), 가정용회전기기(6백9십만불, 5.3%)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1.7% 증가한 6억9천만불을 기록했다.

미국은 정보기기(3천9백만불, △23.2%), 무선통

신기기(2천2백만불, △21.3%) 등에서 감소한 반면, 영상기기(9백4십만불, 149.6%), 반도체(4억7천만불, 9.9%), 전자응용기기(2천9백만불, 8.4%) 등은 증가함으로써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한 7억2천만불을 기록했다.

다. 무역수지 동향

품목별로는, 유선통신기기(△3천4백만불), 개인용컴퓨터(△1천2백만불), 스피커(△9백만불) 등 품목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휴대용전화기(16억3천만불), 위성방송수신기(7천8백만불), 휴대용컴퓨터(1천1백만불), 모니터(6억5천만불), 영상기기(5억불), 냉장고(1억1천만불), 세탁기(5천2백만불), 에어컨(1억5천만불), 전자레인지(3천1백만불), 음극선관(1억5천만불), 반도체(2억9천만불) 등 품목에서 흑자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일본(△4억1천만불)에서는 적자를 나타냈지만 중국(7억8천만불), 홍콩(6억9천만불), 러시아(1천8백만불), 영국(1억7천만불), 독일(2억7천만불), 프랑스(4천4백만불), 미국(9억8천만불), 말레이시아(5백만불), 캐나다(1천2백만불) 등 대부분의 주요교역국은 흑자를 보였다.

2. 평가 및 전망

가. 5월중 수출입 실적 평가

수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유선통신기기와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은 일본으로부터는 무선통신기기, 디지털TV 등의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으로부터는 집적회로반도체 및 계측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나. 6월중 수출입 전망

수출은 국내경기의 회복지연, 중동정세 불안과 고유가현상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회복에다, 디지털전자 업계가 수출 중심 마케팅 전략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